

광양해비치로~섬진강 관광루트 본격 개척

정현복 시장, 주민과 함께 20.4km 뱃길 탐사하며 현장행정 펼쳐
관광 경쟁력 평가하고 유람선·마리나 시설 운영 등 의견 나눠

광양시는 지난 17일 광양해비치로와 섬진강을 연결하는 관광루트 개척을 위해 섬진강 뱃길 탐사를 실시했다.

이번 뱃길 탐사는 정현복 광양시장이 현안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공무원, 시민과 현장에서 현황을 공유하고 문제점을 진단하는 '현장행정의 날'의 일환으로 진행했다.

오전 10시 만조시간에 맞춰 진행된 이번 탐사에는 정현복 광양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김맹철 어민회장, 태인동, 진월면, 다압면 주민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일행들은 낚시어선 3척에 나누어 승선한 후 중마동 위그선부두(호넨락희 앞)를 출발해 광양해비치로-망덕포구-오사-중도 둔지-경전선철교에 이르는 20.4km를 탐사했다.

이순신대학교해변관광테마거리 명칭으로 확정된 광양해비치로는 해(태양)와 海(바다 해)+빛+이의 합성어로 '비치'는

beach(해변)를 의미한다. 365일 언제나 광양 온 누리에 해가 비치듯 와우공유수면 일대 해안선 9.4km 구간이 늘 빛나길 바라는 소망이 담겨 있다.

이들은 해양에서 바라보는 광양해비치로와 망덕포구, 섬진강 주변 경관의 관광 경쟁력을 현장에서 평가하고, 향후 유람선과 마리나 시설 운영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오감 만족을 추구하는 여행 트렌드에 부합하는 인프라와 다양한 관광콘텐츠 구축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과 주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선상에서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광양만과 섬진강 일대는 광양 관광의 숨어있는 보석 같은 곳으로, 현재 추진 중인 망덕포구 관광 명승화 사업과 섬진강 뱃길 복원사업, 광양해비치로 조성사업, 가족형 어린이테마파크, 구룡산관광단지조성사업 등이 완성되



광양시는 지난 17일 광양해비치로와 섬진강을 연결하는 관광루트 개척을 위해 섬진강 뱃길 탐사를 진행했다. (광양시 제공)

면 핵심 관광축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특히 광양 관광의 대명사로 손꼽히게 될 광양 해비치로 경관 조경사업이 내년 상반기에 준공되면 새로운 도심관광광지가 탄생하는 순간을 맞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양시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시정방침으로 매월 2차례 '현장행정의 날'을 운영해 시장이 직접 주요사업장과 민생 의견 수렴현장, 중소기업체 등을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 행정을 이어가고 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포항 벤처밸리 기업협의회 킥오프 행사.

포스코, 포항·광양 벤처기업 육성 나서

벤처밸리 기업협의회 발족

포스코(회장 최정우)가 포항·광양 지역 벤처기업, 창업보육기관 및 지자체 간의 유기적인 소통을 위한 '벤처밸리 기업협의회'를 발족하고 벤처기업 육성에 본격 나선다.

벤처밸리 기업협의회는 포항·광양 지역의 197개 벤처기업으로 구성되어 민간 자율적으로 운영되며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포스텍, 테크노파크 등 14개 창업보육기관, 포항·광양 지자체가 지원한다. 협의회는 벤처기업 운영에 필요한 안건을 주기적으로 논의하고 맞춤형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등 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활동할 계획이다.

포스코는 벤처밸리 기업협의회 간사로 참여하며, 포스코의 인프라 및 역량을 활용해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자문과 기업협의회 운영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9일 포스텍에서 개최한 포항 벤처밸리 기업협의회 킥오프 행사에는 기업협의회 회장 장영균 휴비즈CT 대표, 이강덕 포항시장, 포스코 오규석 신성장 부문장, 오형수 포항제철소장, 벤처기업 대표 등 150여명이 참석했으며, 스타트업 생태계의 새로운 방향을 주제로 한 토론회도 열렸다.

광양에서는 27일 별도로 킥오프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오규석 부문장은 "포스코는 기업시민 경영이념 아래 선순환 벤처 플랫폼을 구축해 국내 벤처기업 생태계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협의회는 포스코 벤처밸리 3대 중점 사업 분야인 ▲소재·에너지·환경 ▲바이오·신약 ▲스마트시티·스마트팩토리를 대상으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기업들간의 기술 교류를 추진하고 벤처마킹 등을 통해 건강한 벤처생태계를 구축하고 시너지를 창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매년 포럼을 개최해 협의회 운영과 사업 성과 등을 공유하고 투자유치 및 자문 등을 받을 예정이다.

포스코는 지난 5월 포스코 벤처플랫폼 구축계획을 발표하면서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과 포스텍의 R&D 역량을 활용해 벤처기업들의 연구, 투자유치 및 기술교류 활동 등을 촉진할 수 있는 '벤처밸리' 조성하고 유망 기술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벤처펀드'를 조성하는 등 2024년까지 '벤처밸리'에 2000억원, '벤처펀드'에 8000억원 총 1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포스코는 청년창업 및 벤처기업 등을 지원해온 상생활동을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의 제2호 자상한 기업(자발적 상생기업)으로 선정됐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아프리카돼지열병 파문에 광양전통숯불구이축제 취소

제18회 광양전통숯불구이 축제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우려에 따라 취소됐다.

광양전통숯불구이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신익)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우려에 따라 26일부터 29일까지 광양읍 서천면 등서 개최할 예정이던 '광양전통숯불구이 축제'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축제 추진위원회는 지난 17일 경기 파주시에서 국내 최초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치사율이 거의 100%에 가깝고, 예방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데다 축제 개최 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파될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다.

특히 광양전통숯불구이 축제의 경우 축산과 밀접한 먹거리 축제는 점도 취소 결정에 반영됐다.

신익식 축제위원장은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라 취소 결정을 내리게 돼 매우 유감스럽다"며 "축제 준비 관계자와 참여를 기대한 시민 및 관광객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올해 18회째인 '광양전통숯불구이 축제'는 광양불고기를 주축으로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행사를 다한 광양시 대표 먹거리 축제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광양시 지역농산물 100억원 규모 중국 수출 MOU 체결

렌윈강시 방문 수출입상담회

광양시는 국제 우호도시간 실질적 경제 교류 증진 및 지역 농산물 수출 촉진을 위해 18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 렌윈강(連雲港)시를 방문했다.

김명원 광양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광양시 대표단은 우호교류팀 5명(부시장, 농산물마케팅팀장, 국제협력팀장, 해양수산팀장 1)과 수출상담팀 7명(농산물 수출업체 4, 담당공무원 1, 통역요원 2)으로 구성했으며 지난 19일 렌윈강 부시장 접견을 시작으로 렌윈강시 도시계획관 시찰, 한-중 농수산물 수출입상담회 개최, 장수성 농업국제협력상담회 참가, 렌윈강시 새우·미꾸라지 양식·수출업체 방문, LNG 수입업체 방문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특히 19일에는 현지 호텔에서 '광양-렌윈강 한-중 농산물 수출입상담회'를 개최해 상담회에 참가한 렌윈강시 바이어들과 심도있는 수출입 상담 활동을 펼쳤다.

이 자리에서 광양시는 청매실, 파프리카, 새싹삼 등 농산물 가공 제품을 대해 6건의 수출 MOU를 체결해 5600만 위안(한화 약 100억원) 규모의 수출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20일부터는 3일간 렌윈강시에서 열리는 '2019 중국 장수(江蘇)농업국제협력상담



광양시는 지난 19일 '광양-렌윈강 한-중 농산물 수출입상담회'를 열어 청매실과 파프리카, 새싹삼 등 농산물 가공 제품 6건 100억원 상당의 수출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광양시 제공)

회'에 우리 시 우수농산물 전시·홍보 부스를 설치해 판촉 행사를 펼치는 등 국제 우호도시간 농수산물 수출입 협력을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김명원 광양시 부시장은 렌윈강시 경제 부시장 접견 자리에서 "이번 광양시 대표단 렌윈강시 방문을 계기로 양 시의 우정이 더욱 돈독해지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통상무역, 관광,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경제교류를 통해 양 시의 새로운 협력 패러다임이 구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우하이원(吳海雲) 렌윈강 부시장은 "지난해 양 도시간 체결한 '실질적 경제

교류 협정'은 매우 큰 의미가 있으며, 이번 광양시 부시장 일행 렌윈강시 방문은 실질적 경제교류의 첫 걸음이다"며 "앞으로 양 시 간에 보다 깊이 있는 협력과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광양시는 국제 자매-우호도시간 교류를 적극 확대하여 문화·예술·스포츠·인적교류 뿐만 아니라 지역 농특산물 수출, 관광, 투자유치 등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국제교류 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광양시 26일 시내버스 노선개편 용역 공청회

광양시는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내버스 노선개편 용역 공청회를 연다.

이번 공청회는 운송업체의 주 52시간 근무에 대비,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꾀하고 시민의 교통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열린다.

시는 현재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 31개 노선 중 탑승률이 극히 저조한 비수익 노선과 중복 운행되는 구간 일부를 감회, 통폐합하고 도심형 순환버스 신설 등 효과적인 노선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0월 중 주민설명회를 열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

한정선 광양시 교통행정팀장은 "이번 노선개편은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간선과 지선의 역할 분담, 연계 등 시민 편의를 고려하게 된다"며 "이번 용역을 통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마시고 전하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Nim e Bnong Solar Energy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